Shakespeare의 <*Richard II*>

I. 역사극(Histories, History Play)의 본질

역사극에 대한 인식:
르네상스시대는 정적이던 중세의 사회인식에 대한 반발로서 인간성의 참다운 표현을 그 행동력의 추구에서 찾으려 했다.

Aristotle <Poetics>
Thucydides: Herodotus까지 포함한 모든 역사가들은 모두가 산문작가이다

역사극은 경험된 사실로서의 역사적 사건이 소재가 되고, 여기에 서술자/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이 가해짐으로써 그 존재가 드러난다.

경험된 사실로서의 과거를 소재로 다룬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커다란 문제를 함축한다.
----> 충실한 기술, 객관적 기술이라는 문제?

결국 역사의 기술이이라는 것도 상상적 허구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을 소재로 한 역사극은 더욱 더 허구적일 것이다.----> 역사가/ 역사극작가는 소재의 선택(select)과 그것에 대한 해석(organize)의 특권을 가진다.

이 말은 극의 구성을 'action'과 'event'로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다.(Fergusson) 그리고 전자는 후자를 결과로 야기하는 방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역사극의 본질을 the temporal re-enactment of the past events(Driver), 혹은 an imposition of a form upon the past(Huizinga)라고 평한다.

이는 결국 극의 본질적인 성격과 더불어 서브장르로서의 역사극이라는 것이 다른 극의 형식보다도 더욱 더 사회성을 반영하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식의 표명이다. --->
James I세는 극의 후원을 몸소 실천하면서, 연극행위를 visibel and outward sign of his office 라하여 자신의 통치행위와 경부시킨 바 있다(Basilikon Doron)

II. 영국역사극과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의 영국사극(English History Plays): 총 10편
작품의 소재를 기준으로 나열해 보면,

- King John
- Richard II---- 1Henry IV---- 2Henry IV-----Henry V
  (The Second Tetralogy, Lancastrian History)
- 1Henry VI---- 2Henry VI---- 3Henry VI----Richar III
  (The First Tetralogy, York vs. Lancaster---> 1485 Henry VII, Richmond, Henry Tudor)
- Henry VIII

결국 영국역사극은 그 시간상의 영역으로 보아서, a play about English dynatic politics of the feudal period 라고 볼 수 있다.

세익스피어의 영국사극이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성격: 소재를 제공한 두 권의 책으로 부터 나온다
* Raphael Holinshed의 *Chronicles(1577)* : 영국의 전설까지 포함한 주로 야사적 성격의 역사서
* *The Mirror for Magistrates(1563)* :15세기 시인인 John Lydgate의 The Fall of Princes

라는 책의 연속편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Richard II부터 Henry VIII까지의 시대에 공적으로 불행해진 정치인과 귀족들이 자신의 불행을 운문형식으로 말하고, 여기에 주요 인물들의 적절한 견해와 평가를 산문형식으로 제시하는 구성을 가진다.

이 두 권의 책자는 르네상스 영국의 문학과 정치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역사서였다.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영국사극이 끝나는 시점이 1485년이라고 본다면, 두 권의 책속의 내용은 당시를 기준으로 근100년 이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근 한 세기의 시간차를 가지고 초기 튜더인들이 바라 본 그 당시의 역사는 결코 객관적일 수가 없다.

그러니 셰익스피어의 영국사극은 자신의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된 역사책을 주요한 원천으로 삼아 여기에 셰익스피어 자신의 작가로서의 견해, 상상력을 가미했다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그가 그린 사극은 그 내용이나 의미가 자신이 살고있는 당대의 시각을 반영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다소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국사극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간은 사극의 목적을 찾는데 주력하여왔다.
----> 셰익스피어사극의 목적은 모든 시대에 다 통용되는 정치과정의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았고, 스페인 무적함대로부터 영국을 지켜준 애국심의 고취에 의의를 두면서 real hero of the English history play is England라고까지 하였다. 어떤이는 이러한 시각을 Patriotism, Politics, Nature로 단순화시키기도 하고(Berry), 또 nationalism, absolute obedience to the reigning monarch, order and unity(Gupta)라고 그 목적을 규정하기도 한다.----> 너무 우파 이데올로기적 효용성에 경도된 시각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영국사극의 감추어진 미학은 바로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과거를 통해서 현재(자신의 시대)를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있을 것이다.

III. Richard II(1377-1399/ written in 1595)

* 왕위 찬탈이라는 가장 비극적이고도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왕위찬탈은 당대 엘리자메스여왕과 에섹스백작의 대결구도로 해석되면서, 여왕은 I am Richard II. Know you not that?라고 불평을 할 정도로 불안한 시대에 민감한 정치적 함의를 담은 작품이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통적인 왕권신수설과 르네상스 개인/능동주의의 대결 (중세주의와 르네상스주의의 대결)
그러나 리챠드가 태생적인 왕권을 주장하기에는 결함이 있고,
한편 볼링브루크가 찬탈의 명분을 내세워도 그 자신의 결함이 있다.
즉 양자 모두가 나름대로의 결점을 보여줌으로서, 관객의 판단을 좀 더 신중하게 유도하려는 셰익스피어의 의도가 담겨있다. 그는 누구의 편일까?

* 리챠드의 군주로서의 결함?
* 볼링부루크의 성격적 결함?

* <말>의 힘:
Utterance also and language is given by nature to man for perswasion of others, and aide of them selves, I meane the first abilitie to speak. For speech it selfe is artificiall and made by man, and the more pleasing it is, the more it prevaileth to such purpose as it is intended for.- Puttenham, *The Arte of English Poesie*

철학의 아성에 대한 수사학의 도전.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의 추구를 총한 인간능력의 낙관적인 비전을 확립
그리고 그 교육의 구체적 수단으로서의 말에 대한 관심.
사회적효용을 통한 인간의 교화라는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언어도 잘못 사용되면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리챠드의 말에 대한 기본 인식은 언어와 그 대상이 1:1의 함수관계를 이룬다. 있는 그대로의 의미만을 인식.
그러나 언어는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가, 오히려 주어진 문맥과 상황속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더욱 더 중요시된다.

<리챠드 2세>에 대한 기존의 해석법은 주로 주인공의 성격을 그 주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 예술가적 인간 vs. 실리적 인간/ sonneteering king, sentimentalism + passion
ill-fitted king(Yeats), 그의 유약함과 천박함에 대한 지적.

* 처음 모브레이와 볼링부루크간의 결투장면----pilgrimage
* Gaunt is gaunt---이름가지고 장난을 치네
* 곤트: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는 것이요---그 대답은?
* 볼링부루크가 유배를 떠날 때 곤트가 하는 말---네가 왕을 유배시킨다고 생각해라
* 떠날때는 볼링부루크지만, 랭카스터로 돌아왔다
* 유배를 떠날 때의 군중을 대하는 태도
----> garden of word/ a vast arabesque of language

Now is this golden crown like a deep well
That owes two buckets, filling one another,
The emptier ever dancing in the air,
The other down, unseen, and full of water.
That bucket down and full of tears am I,
Drinking my griefs, whilst you mount up on high. (4. 1. 184-9)

---

* 리챠드 2세의 각색본: 1680년 Nahum Tate에 의해서 각색이 됨. 그러나 이 극은 그해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3회 공연으로 막을 내린다. 이유는 공연금지----> 내용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다. 그리고 당대의 정치상황과 너무 유사하여 당국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이다.

1642년 청교도혁명으로 인해 극장공연이 금지된 후 1660년 왕정복고와 더불어 Charles II가 즉위함으로써 문화, 예술이 만개했으나, 정치적으로는 그 후계문제를 둘러싼 종교의 갈등, 왕과 의회와의 갈등, 그리고 1665년 런던의 대화재와 대역병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현상

등으로 인하여, 이 극이 자칫하면 대중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로 인해 Tate는 분명히 자신의 의도를 밝혀야 할 상황이었다. 즉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리챠드인가 볼링부루크인가? 당대의 사회상황으로서는 안정을 희구하려는 정치권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리챠드를 옹호하는 편에 서야 했었다.

그래서 Tate는 그의 각색본에서 원작 속에서 리챠드의 악행 혹은 무리한 장면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볼링부루크를 민중을 선동하는 자로 설정하여 극을 맺음. ---> 리챠드를 순교자로, 볼링부루크를 위그적인 선동가로 묘사.

그리고 그 자신도 각색본의 서문에서 자신의 작품이 잘 못 평가된데 대한 불평과 더불어 극의 의도를 정확하게 밝힘. ----> 극을 보지도 않은 자들이 자신을 불충한 극을 쓴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으나(They that have not seen it Acted, by its being silenc't, must suspect me to have Compil'd a disloyal or Reflecting Play), 이는 자신의 의도와 전혀 다르며(But how far distant this was from my Design), 약간의 상식만 가지고 읽어도 자신의 의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Conduct in the Story will appear to him that reads with half an Eye)..... 나의 의도는 역경을 겪는 리챠드에 대하여 관객의 연민을 끌어내는데 있다(My Design was to engage the pitty of the Audience for him in his Distresses).